Art & Cultural Incheon Magazine 예술인천 Vol. 33

The conceptions of environment



**예술인천** 후원기관

Sustainable Korea

재단법인 승국문화재단



#### coverstory+

# 조재식 사진작가의 어느 날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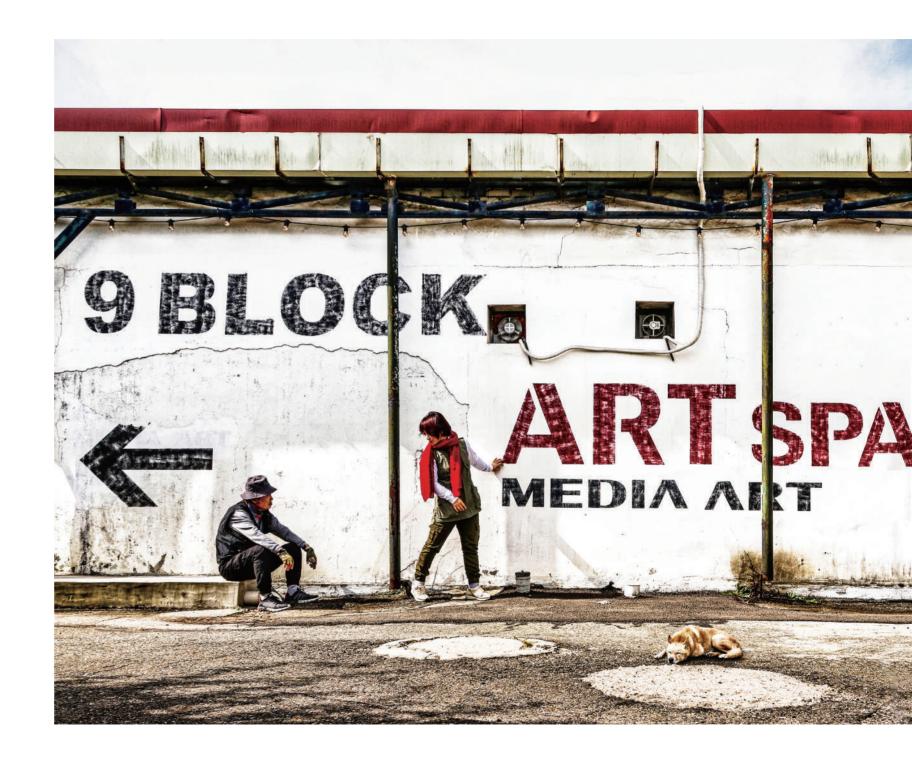
제33호 예술인천은 The conceptions Of "environment"로, 다각화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였다.

#### 조재식 사진작가의 "어느 날 오후"의 작품은

일상 속의 한 남녀, 강아지 모습과 벽 그 외 구조물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상황을 작가의 셔터 클릭으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멋진 작품으로 승화하였다. 평범한 일상이 작가의 셔터로 인해 작품적 가치를 지니게 될 줄 누가 상상하였겠는가? 어쩌면 흔한 일상의 한 모습일 텐데 말이다.

이처럼, 환경이라는 주제는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와 이를 받아드리고 재해석하는 객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단면으로 볼 때 환경이라는 것과 주제가 멀어 보이지만, 작품 혹은 작품을 시연하는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을 표현하는 환경이고 이를 접하는 관객은 그 세계를 엿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맥상 연결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편집부



####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2022, 제33호

#### 예술인천 Art & Cultural Incheon

#### **EDITORIAL**

#### The conceptions Of "environment"

**발 행 인** 김재업

**기획·주관** 신은경

편 집 장 이목연

편 집 부 신은경

취 재 진 신은경

**감** 수 배천분

**발 행 일** 2022년 7월 1일

발 행 처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소** 22166 인천시 미추<del>홀구</del> 수봉안길78(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전** 화 032-872-7873

**팩** 스 032-872-5551

이메일 artincheon@nate.com

홈페이지 www.artin.or.kr

#### **Contents**

Gallery 4



Cultural 34



FAC0 **52** 



#### 지상갤러리+

인천미술협회 • 06 인천사진작가협회 • 16 인천문인협회 • 24

#### 문화+

 Cultural+만남 • 36

 인천의 문화예술을 만나다

 (사)인천예총 제13대 김재업 회장

 Cultural+ 생각 • 4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과 문화예술의 결합

 Life Logging 라이프로깅

Cultural+감각 • 44 도시재생뉴딜에서 공동체로!

Keyword+ 78

끝맺음 詩 80

#### FACO+

인천예총 • 54

인천국악협회 • 62 인천무용협회 • 64

인천문인협회 • 66

인천미술협회 • 68

인천사진작가협회 • 69

인천연극협회 • 71

인천연예예술인협회 • 73

인천영화인협회 • 75

인천음악협회 • 76

<sup>\*</sup>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p>\*</sup>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예총에 있으며,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 Park Young Jo

Artist. 박영조

**개인전 18회** (개인부스전 포함), 청년작가 31인전, 인천여류작가전, 황해미술전 등 현재 사)국제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 이사장,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감사 서울여류화가회, 인천여성서양화회, 민예총, 민미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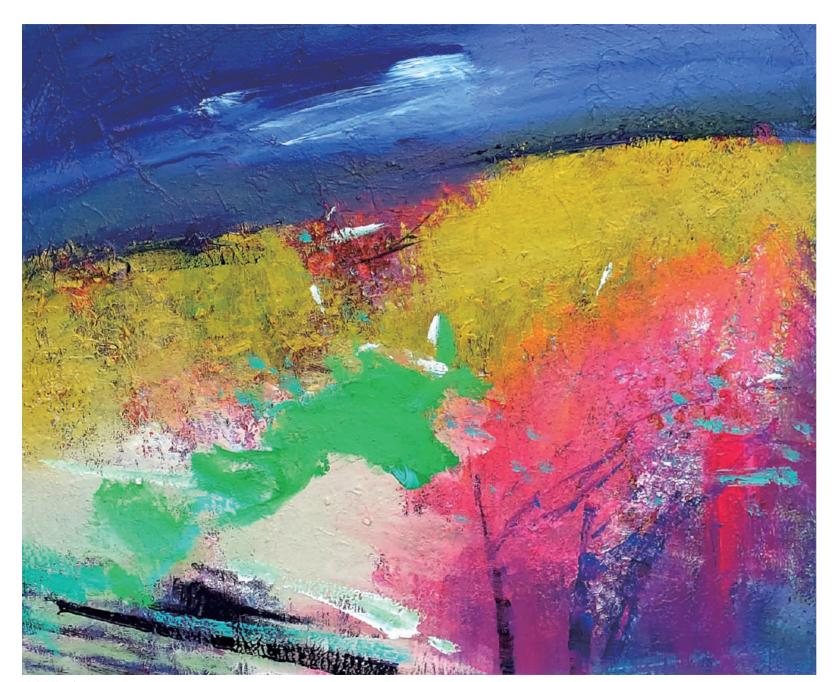


생명이 죽어 또 다른 생명을 살려야 하건만 사람의 욕심이 생명과 환경을 죽인다. 그렇다고 누구인들 타다 만 연탄을 발로 찰 수 있으랴, 욕할 수 있으랴. 자신을 태워 그 따뜻한 온기를 주건만 타다 만 연탄에서 스멀스멀 사람의 욕심이 피어난다.

#### 편집부 한줄평

연탄이라는 무생물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작품이다. 연탄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따뜻하게 살 수 있지만, 연탄의 희생은 과연 당연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 하게 만든다. 연탄의 희생이 모여 사람들은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희생에 대해 당연시 되는 환경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정의 왈츠 | 53cm×45cm, Acrylic on Canvas

#### Choi Tae Boon

Artist. 최태분

#### 개인전 23회

대한민국 100인 작가 선정(하나로 갤러리), 미국 뉴욕 초대전, 한국작가 100인 초대전 등 다수 **현재** 현대작가미술협회 자문위원, Art Group N.A회 사무국장, 한국미술협회, 연수구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회원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만나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양한 색채로 뒤엉키고 그사이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완성되어가는 생의 유희를 아름다운 자연 으로 승화시켜 표현하여 나의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 정겹게 손잡 아 행복을 함께 느꼈음하는 마음…

#### 편집부 한줄평

인생사를 캔버스 위에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생사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삶을 미술의 기법과 색감을 통해 한 면에 볼 수 있다. 작품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나'라는 환경이 이리도 다채롭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다. Gallery+ 10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11 The conceptions Of environment

#### Oh Hyeon Ju

Artist. 오현주

#### 이화여대 미대 졸업

**개인전 23회** 및 공모개인전 인천문화재단 표현창작활동 공모선정 개인전 중구 시설관리공단 공모 선정 개인전 외 단체전150여회 국내외 아트페어 다수

**\*작품소장**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경기도 건축물조형 인천시 건축물조형

\*수상 교육부 장관 표창 외 공모전 입상 다수



개인 간, 집단 간 서로 다른 고유성이 함께 함이 공생과 상생이기를, 유쾌한 공존이기를 바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작업은 色의 하모니를 통하여 나만의 조형언어로 시대적 명제를 조금은 무겁지 않게 풀어내고 있다.

#### 편집부 한줄평

개개인의 인생들이 모이고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니… '함께'라는 단어를 한 번에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작품 속 배경에 칠해진 다양한 도형들은 나와는 다르지만 각각의 공생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린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명랑한 동거\_초겨울 흐린 하늘 | 116.8cm×91.0cm, Acrylic on Canvas

Gallery+ 12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13 Environment



2006 pollen 녹청자를 품다 | 30cm×30cm 정방, Acrylic color & Mixed on canvas

#### Lee Seong Mi Artist. 이성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서양화과 졸업/개인전 및 아트페어 부스전 **현재** 인천미협이사, 서구문화예술인회 총회장, 인천아트페어 운영위원 인천한마당 운영위원장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계양미술대전 심사, 바다그리기 심사, 인천초대작가



요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pollen(꽃가루)를 채집하러 떠난 일벌들이 집으로 오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 환경오염 문제점으로 생각한다. 환경오염으로 꽃가루가 사라진다면……. 심각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나의 작품속의 pollen은 고향에서부터 끈질기게 자신과 함께 해온 들꽃속의 pollen이다 더 이상 pollen이 사라지지 않고 들꽃속에 간직한 정체성을 녹청자 도자기의 이미지를 통해 계속 되살려내고자 한다. 인천지역의 살아있는 역사인 녹청자 도자기에게 이것은 또한 오랫동안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한 작가의 시선과 만나는 새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꿀벌이 사라지지 않고 pollen이 만발한 들꽃을 바라보고 싶다. 그것은 오랫동안 나의 마음 속에 그려왔고 화폭에 되살려온 꽃의 말이며 그 꽃가루와의 만남, 즉 pollen이 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편집부 한줄평

꿀벌과 꽃가루를 주제로, 환경의 문제점을 집어내고 있는 듯한 작품이다. 허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작가가 말하는 꽃가루는 개인의 꿈·가치 등 나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꽃가루가 사라졌을 때의 나의 삶이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를 되물어보게 된다.

#### Lee Jun Gu

Artist. 취정 **이준구** 

관인 동정서예학원 설립(설립자)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고문, 인천미술협회 고문, 인천광역시문인화협회, 인천광역시중구미술협회 초대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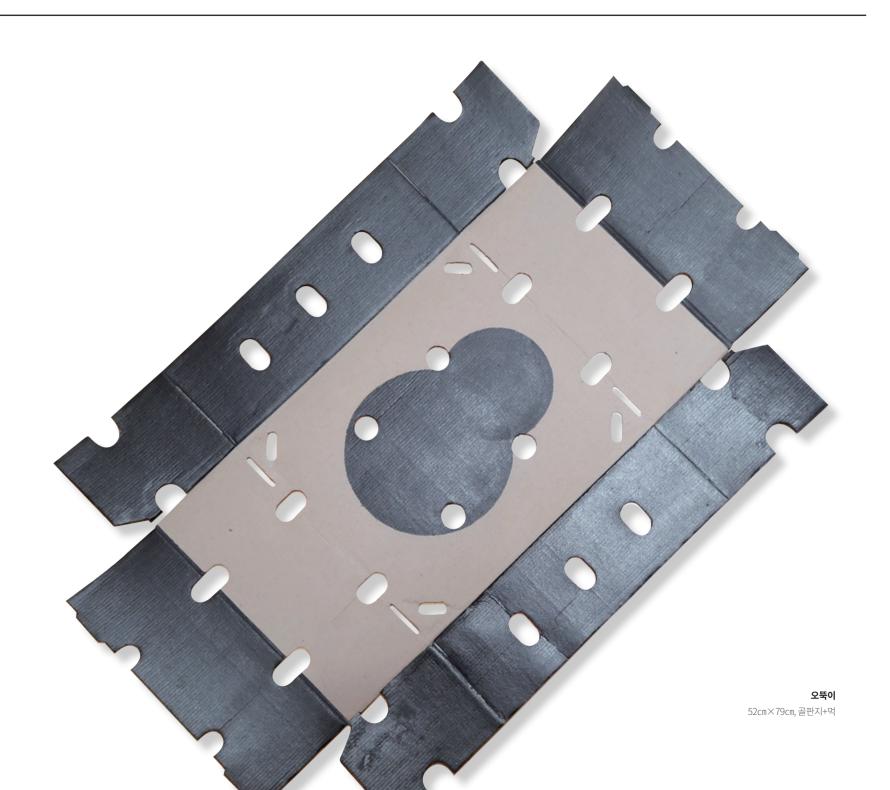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며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생활 폐기장의 부패하는 냄새를 모르며 오렌지쥬스가 아닌 물을 왜 사먹는지 모른다. 여름이 왜 더워 가는지 모르며 일상이 편리하여 느껴지지 않는다.

'굳이 내가 왜 알고 실천해야 하는지 모른다'하여 골판지 상자에 조촐한 작품을 하는 뜻을 굳이 알려서 무엇하리야.

#### 편집부 한줄평

'굳이 내가 왜 알고 실천해야 하는지 모른다하여 뜻을 굳이 알려서 무엇하리야'라는 작가의 작품설명에서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든다. 점점 편해지는 일상에 만족하여 그 편해지는 일상이 어떤 것의 회생으로서 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의문을 가지고 작품을 다시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난해한 감정들이 쏟아져 먹먹함을 주지만 깨달음도 함께 전달받는 듯하다.





#### Koo Myungwha

Photographer. 구명화

현대인의 삶에는 문화 충족 욕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대신하여 주는 곳이 많은 전시장에 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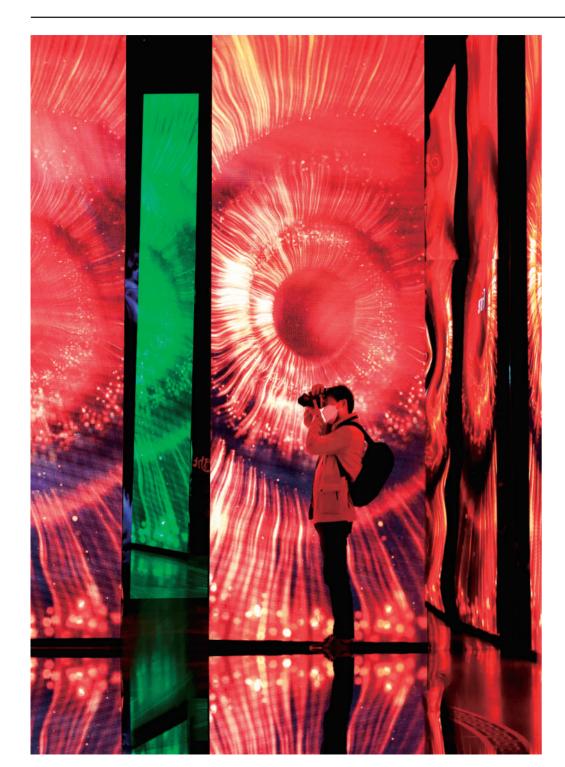
나는 사진이 좋아서 시작한 작가로서 전통적인 사진이라 일 컬어지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풍경 사진보다는 전시장에서 의 시각적인 것을 바탕에 두고 미학적 사진을 탈피하고 개념 적이면서 내용적으로 나만의 담론을 반영하고 싶은 생각에 지 금도 꾸준히 전시장 소경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되었다 자만할 순 없겠지만,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각을 하나의 사진에 넣어봅니다. 제가 추 구하는 작품세계가 오랫동안 생명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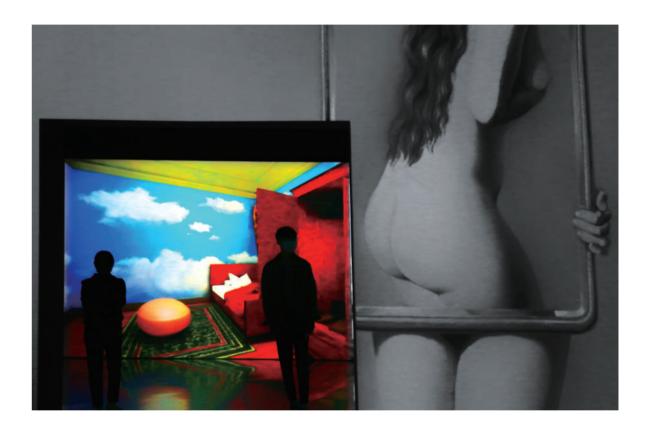
현재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여성분과 감사 연수구예술인연합회 연수사진협회 이사 순천미술대전 추천작가

전시 경력 구명화사진전 "본다는 것"(2021)

**수상실적** 인천전국사진공모전 동상 (2014) 김포전국사진공모전 금상 (2016) 용인전국사진공모전 동상 (2017) 순천미술대전 특선 (2017, 2019) 인천시사진대전 우수상 수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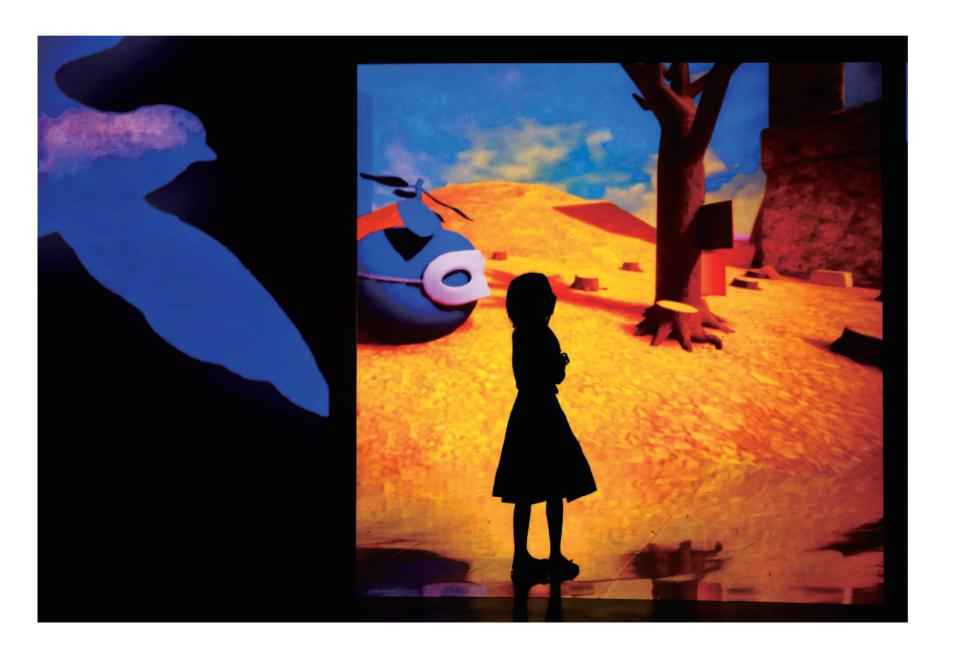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는 것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표현해야 할까요?

예술 작품을 그저 작품으로 보는 일차원적인 방법이 아닌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과 숨겨진 부분들을 발견하여 재해석한다면 우리 마음 속 깊숙이 숨어 있는 내면의 향상은 물론이요, 정신세계 또한 풍요로워지며 한 걸음 더 성장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장면과 피사체의 보이지 않는 역사마저 담아내야 합니다.





The conceptions Of

environment



그리하여 저는 모두가 진정 좋은 작품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선으로 내면을 바라보고 표현하려는 의지를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Gallery+ 인천문인협회 Art & Cultural Incheon 25 Environment

#### 임봉주시집 **〈들꽃에 화엄의 길〉**



#### 들꽃에 화범의 길



미소

일상속에 마주치던 풀꽃이 나에게 작은 것들의 소중함에 눈뜨게 했다. 자주 접하다 보니 친해지고 보면 볼수록 귀엽고 앙증맞다. 그 작은 꽃들이 내게 준 기쁨으로 이 시집을 풀꽃에게 바친다.

- 작가의 말중에서 -

#### Im Bong Ju

Author. 임봉주

땅끝 해남 출생

1998년 시집 『지상에서 꿈꾸는 천상』 발표하며 시단에 나옴

2005년 계간 《자유문학》 신인상

2008년 시집 **『꽃화살 바람의 춤**』

2014년 시집 **『풀잎은 나부끼고**』

2019년 시집 **『비탈에 선 꽃에게**』

2021년 시집 **『푸른 행성의 편지**』

2021년 시집『**들꽃에 화엄의 길**』

현재 인천문인협회 이사.



저자 임봉주의 『들꽃에 화엄의 길』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옥 같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 편집부 한줄평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혹은 너무나 당연해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을 느껴볼수 있었던 책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 하나의 생명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집이다. Gallery+ 일선 이후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27 The conceptions Of environment

#### Han Yeon Sun

Author. 한연순

2000 《조선 문학》 등단

조선시문학상, 인천펜문학상, 인천문학상 수상 시집 『**방치된 슬픔**』(2002), 『**공기벽돌 쌓기 놀이**』(2006), 『**돌담을 쌓으며**』(2008), 『분홍 **눈사람**』(2021) 외 동인지 다수

E. sisan8053@naver.com



시인이 현상을 지각하는 순간은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을 견디는 한 방식으로 시인은 시를 쓴다. 현상을 지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의 내부를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아포리아를 돌파한다. 시인은 직관으로 사물마다시의 촉수를 댄다. 그러므로 한연순 시인이 현상 앞에서 격렬한 통증을느낄 때마다 시적 진리의 꽃이 피어난다.

고광식(시인, 문학평론가)

#### 편집부 한줄평

예술가가 보는 시선에서 일상과 일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단추,음식,환경 등등 예술가의 시선에서 진리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한연순시집 **〈분홍 눈사람〉**



누군가 텅 빈 내용을 먹고 있다. 헛된 꿈이라도 잡고 싶은 날 봄볕에 모여든 사람들이 희망처럼 부풀어 오른 산산조각을 먹는다. 단 꿀물이 흐르는 허공의 메아리를

- '공갈빵' 일부 -

Gallery+ 28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29 environment

#### 김해리시집 **〈꽃에게 꽃이냐고 물었다〉**



그의 눈물로 목을 축이며 내일을 받아 적었다.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훨훨 날아라. 그가 바깥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까지 오래 기다렸다. 시는 나의 믿음이고 사랑이다.

- 2022년 1월 김해리 -

#### Kim Hae Ri

Author. 김해리

2021년《전라매일》신춘문예 당선 시집 『**꽃에게 꽃이냐고 물었다』,『모션현혹이론**』 한국예술인재단 창작준비금 수혜

E. kim\_js0317@hanmail.net



시와반시 기획시인선 24권. 김해리 시인의 시들은 아련한 슬픔이 느껴지면서도 아름답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따뜻하다. 이런 다양한 정서들의 중첩은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인의 시선의 깊이에서 온다. 세상은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사랑의 힘이 있어 유지된다.

#### 편집부 한줄평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성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존재하는 것 외에도 존재함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음을 전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Gallery+ 의 30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31 The conceptions Of 인천문인협회 Art & Cultural Incheon 31 environment

#### Lee Sang Eun

Author. 이상은

2012년 《문학과의식》 등단

시집 『어느 소시오패스의 수면법』, 『외로움이 죽어서 물방울이 된 줄 알았다』



2012년 《문학과의식》으로 등단한 이상은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이번 시집에서 이상은의 시 세계에서의 죽음의 풍경은 행복의 도상에서의 튼튼한 지표로 작동한다.다시 말해 단단하고 진실한 어떤 행복이 도래할 가능성을 시인은 참을성 있게 꾸려간다. 불행의스산한 이미지를 눈이 시린 출도 잊은 채 정시하는 것이다. 초탈이나 극기에 가까운 이 체념적 시선엔 사실 인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극진한 끈기가 보인다. 이 시선이야말로 현실을 부술 소용돌이임을, 관습과 질긴통념의 패턴을 재구성할, 운명을 위반하는 꿋꿋한 스크래치의 몸짓임을 시인은보여준다. 지하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듯한 문장의 부피를 건너고 나면 이상은의 '시의 집'은 놀랍게도, 예쁘고 우아한 물방울무늬(「물방울무늬의 이주자」)의 커튼이 드리워진, 스파브로긴의 다락방이나 토마스 아 켐피스의 구석방 같은 "쉴 곳"임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그때의 따뜻하고 깊은신뢰와 위로를 독자 여러분께도 선사하고 싶다.

#### 편집부 한줄평

우리가 느끼는 모든 오감과 감성을 담아 한 편 한 편의 시를 표현한 책이다.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도 어쩌면 일상이라 당연히 하는 행동,큰 의미가 없는 행동들마저도 아련함을 담아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 이상은 시집 **〈외로움이 죽어서 물방울이 된 줄 알았다〉**



물뱀자리별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여기서는 볼 수 없는 별. 되도록 멀리 걸어가고 싶을 때, 어쩌면 이 별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게 안녕을 할지도 모른다.

- 작가의말-

Gallery+ 의 32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의 33 environment

#### 이목연소설집 〈**공을 굴리다〉**



어머니는 지라를 씹어 벌겋게 된 이빨을 드러낸 채 무심히 말했다. "너 가졌을 때 먹던 음식들이 제일 맛있는 거같아. 족발이랑, 순대, 닭발 같은거."

- 〈공을 굴리다〉 중 닭발, p.35-

#### Lee Mok Yeon

Author. 이목연

원주 출생

1998년 『한국소설』 신인상 <악어새의 외출> 단편집 『로메슈제의 향기』 (2001), 『꽁치를 굽는다』 (2009),

『맨발』(2014), 『햇빛 더하기』(2017), 『공을 굴리다』(2021), 우주항공과학소설 <프라이, 날다>(2006) 공저 중국6대기서 시리즈 『서유기』(2010) 편저 김유정 소설문학상 수상(2003), 인천문학상 수상(2009) 한국소설작가상 수상(2015)



저자 이목연의 『공을 굴리다』는 〈닭발〉, 〈파충류 우리〉, 〈빠루빠루〉, 〈목신의 왼쪽〉, 〈이작도〉 등 주옥같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 편집부 한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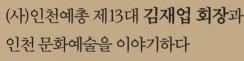
공감, 몰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책이다. 책 속의 인물들의 다양한 삶·환경·모습들을 머리 속으로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이 인상적인 책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이나 모습은 내가 한번쯤 겪어 보았던 경험이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울컥하지만 뭉클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 Alft &

Cultural+만남 • 36 Cultural+생각 • 40

Cultural+ 감각 • 44

# Gultura







36

#### #1 우선, (사)인천예총의 새롭게 취임하신 제13대 김재업 회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을 청했다.

안녕하십니까. 제13대 (사)인천예총 회장으 로 역임하게 된 김재업입니다.

우리 인천예총은 1962년 경기도지부로 출 범한 이후, 1981년 인천직할시 지부로 분리되 어 오늘날 광역시연합회에 이르기까지 60년 간 인천 문화예술의 울타리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예술혼을 피워 인천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낸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예총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 가. 연극. 연예예술인. 음악. 영화인협회 등 총 9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인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 활동과 지역문화 연 구·교육. 정책 참여 등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 심히 뛰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지역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장을 만들어 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예총이 앞장서 일상 속에 예술이 스며들어 풍요로 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많 은 응원으로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 지금까지 사진작가로서 인천문화예술 현장을 경험하셨는데, 인천예총 회장으로서 문화예술의 환경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 일까요?

1980년대 사진계에 입문하여 ▲인천사진 대전 초대작가·대회장 ▲제물포 전국사진대 전 초대작가·대회장 ▲5·18 민주화운동 전국 사진대전 초대작가 ▲인천예총 수석부회장 직을 수행·역임하면서 인천 문화예술가로 서, 한 사람의 인천시민으로서 우리 예술 현 장을 바라보았는데요. 인천의 고유한 향토문 화예술과 그 명맥을 이어가는 단체들이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바람의 문화예술이 인천에 불 어와 보다 활동적인 인천 문화예술계를 만드 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인천 고유문화의 명맥을 잇는 향토문화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같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지역만의 향토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이 융복합되면 더 탄탄한 지역문화가 형성되 리라 믿어집니다. 이에 인천 문화예술의 정 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 이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 는 것이 이제 우리 협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있으신지요.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항을 한 도시 입니다. 낯선 신문물을 내륙으로 전파하기까지의 과정을 가장 생생하게 간직한 곳이지요. 하지만 문 화가 집결된 서울과 가까이 있다 보니 독창적인 향 토문화를 키우기보다는 공급에 역량을 빼앗긴 감 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향토문화를 발 굴해 콘텐츠로 개발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지 역 문화콘텐츠로서의 향토문화예술을 만들기 위 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화합과 소통 그리고 협력" 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향토문화단체와 지역 예술가가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겠지요.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도록 힘쓰겠 습니다. 이 단체가 인천시와 협력해서 문화 컨텐츠

1 단계

향토문화단체와

지역예술가의

화합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민들과의 소통도 필 요하다고 봅니다.

이천의 향토문화예술의 밝은 미래와 이천만의고 유성을 지닌 문화예술이 만들어지고, 발전되기 위 해서는 4단계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방적 제공이나 소비적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는 함께 이루어 나아간다는 활동적 차워에서의 시 도가 있어야 인천의 정체성을 가진 향토문화예술 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예술인천의 키워드를 환경에 맞추었는데요,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환경을 염두에 두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단계적인 차워 에서 발전 및 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향토예술인과 9개 회원단체와의 협력 과 소통입니다. 예술인과 협회가 가지고 있는 고

4 단계

향토문화예술과

인천시민의

소통

충을 덜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체제의 마련과 예술활동의 기회를 넓게 제공하고 경쟁력과 기획 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단체 간의 협업을 통한 문화활동 지원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39

두 번째, 향토문화단체와 새로운 인천의 문화를 이어나가는 단체의 협력입니다. 객관적으로 향토 문화예술단체(지역 고유의 예술단체 등)는 상대적 으로 빠른 변화를 받아드리는 새로운 문화단체( 사설 및 지역 문화재단, 회관 등)보다 기획·방법적 인 접근의 한계가 있지요. 향토문화의 더 나은 발 전보다는 명맥이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는 목적에 서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새로운 인천의 문화단체나 혹은 지역구별로 생겨나고 있는 문화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현 시 대에 맞게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 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단체들과의 협력과 소통 뿐만 아니 라 인천이라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시와의 협력 입니다. 인천 내 문화단체와 예술가들로만 향토문 화예술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 다. 문화예술 역시 소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때론 제공·접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다각도로 협 력 및 지원을 해줄 수 창구가 필요합니다. 창작된 향토문화예술이 인천시민들의 삶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시와 지 속적으로 소통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작된 향토문화예술이 인천시 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소비될 수 있 도록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부 향토문화예술은 소비성이 떨어지거나, 지 역 내에 새로운 문화예술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하여 지원이 끊기 면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는 향토문화예술도 사라 져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써 향토문 화예술이 꾸준히 창작되고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목 소리를 듣고 더 좋은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 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 #5 네,인터뷰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2 단계

향토문화단체와

새로운 인천의

문화를 이어나가는

단체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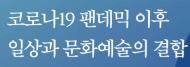
인천의 향로문화예술 발전 4단계

3 단계

인천 내 문화단체와

인천시와의

협력



Life Logging

/ 편집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문화예술

2년 넘도록 지구상의 인류를 괴롭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장을 하려는 모양이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소 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인류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던 코 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변화시켰다. 문화예술계 역 시 비대면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혼란 · 갈등 등의 문제를 겪 으면서 현시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특히 공연, 전시 등 대면적인 요소가 큰 문화예술 장르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비대면 공연이나 전시는 예술가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생소한 일이었다.

그나마 큰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 IT 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발 빠르게 온라인 메타버스라는 체계를 도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객과의 예술품의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면으로서 관객을 접해야 하는 일반 예술가나 원로 예술가에게는 관객과의 대면도, 새로운 체계의 편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문화예술 체험의 주체 변화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는 예술을 제공하는 예술가와 관객들이 문화예술을 대하는 시각적 관점을 달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제공자(예술가) 중심으로 전개되던 작품이 경험자(관객) 중심의 스토리로 변화하게 되었다.

물론 그 전부터 라이프로깅이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하에서 더 없이 활발해진 SNS를 통해 라이프로깅 역시 활로를 찾았다.

라이프로깅(life logging)이란 개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수시로 기록하고 온라인 상에 올려 공유하는 일을 칭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라이프로깅이라는 개념이 정립 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경험자 중심의 스토리가 성하게 되었다. 즉 제공자(예술가)가 제공하는 스토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자(관객) 스스로가 문화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된 스토리를 능동적으로 기술하기 시작 한 것이다.

#### 경험자 중심의 스토리 라이프로킹

기존의 제공자 중심 스토리에서 탈피하여 경험자 중심 스토리로 문화예술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공하는 것에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경험자가 제공자에게 문화예술을 제공받고 그로 인해 느낀 모든 것을 기록하여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가치를 2차·3차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제공자인 예술가가 전달하려는 1차적 제공의 의미를 벗어나 경험자로 하여금 3차원적 의미를 재창조하고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문화를 공유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문화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수시로 기록하는 일

### \_\_\_ 기술적 접근과

라이프로킹에 활용

사적인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IT 문화에 기존의 문화예술인들이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우선 예술가들의 시각이 바뀌어야할 것이다. 예술가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제공자의 입장에서 쌍방형적인 소통의 형태를 인지하고 경험자를 염두에 둔 문화예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술력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주는체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시뮬레이션

메라버스의 네 가지 분류

증강

라이프로깅

일상적인 경험정보를

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

ex. 페이스북360

가상세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세계를

구현한것

증강현실

실제세계에 3차원

가상<del>물</del>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ex. 포켓몬고

거울세계

현실세계의 모습 등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추가정보가 더해진

정보력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외적인

세상은 변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문화적 측면이 가장 많이 변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문화적 불 평등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도시재생 뉴딜에서 공동체로!

인천문인협회 조영숙

2022년 초여름은 2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쳐있는 긴 시간을 보상 받자는 듯 푸르디 푸르다. 푸른 들판,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잇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인천 우리의 도시는 모두가 추구하는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을 벗어나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을 절대적 평온과 안전을 담보하고 미래 걱정인 환경을 함께 넣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 보자고 한다.



#### 재개발과 도시재생

중앙정부는 늘상 주거 주택이 부족하다며 재개발 정책을 내놓고 전국 주택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신도시를 만들어 아파트 수천 호를 짓는다. 새롭게 건축될 아파트들은 기존 아파트를 비웃듯 더 높이 더 높이를 강조하며 올라가고 이에 질세라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는 상가빌딩들은 바람길을 막고 자연을 숨 막히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내놓은 예전의 재개발 정책은 낡은 건물을 모두 부수고 같아엎어 그 위에 그럴 듯한 건축물을 올리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의 도시재생 정책은 오래되고 낙후된 곳에 사회와 경제 그리고 물리적 환경 등을 도입해 중앙정부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했었다. 이제 중앙정부는 기존의 이런 물리적 개선 개발이 아닌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향성으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도시재생 뉴딜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대응 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원도심(구도심) 마을 → 원도심(구도심) 도시재생 진행





인천은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은 원도심(구도심)으로 도시재생의 붐을 안고 대단위 조성사업 혹은 소규모·단독 아파트형 조성사업 등으로 새로운 재생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건축공법이 발전하고 과학화 되면서 날로 높아지는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빈 건물, 빈 집을 장기간 방치하게 하고 쇠락하게 하는 비애를 원도심(구도심)에 낳았다.

이런 원도심(구도심)의 쇠락한 곳 일부와 빈 집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전사고와 범죄 가능성의 우려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침해를 생각한다면 간과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 쇠락한 곳 일부와 빈 집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기반시설과 아직도 유동인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도심(구도심) 곳곳 쇠락한 곳 일부와 빈 집 주변에 아직도 유동인구가 존재하고 있다



 Cultural+ 감각
 50
 예술인천 2022 Vol.33

#### 앞서가는 주민, 도시의 주인공

지금 인천은 도시재생 뉴딜로 지역의 주민과 예술인, 행정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 미래를 성장시키고자 손에 손을 잡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보다나은 도시공동체를 만들려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인천의 주민들은 자치 단체를 만들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나 공동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 직접 관여하고 실행(안)을 제안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인천의 주민들은 새로이 조성된 도시 위 건축물이 만들어낸 원도심 (구도심)과 원도심(구도심)안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작은도서관, 혹은 소규모 주민들의 소통장소 등을 곳곳에 확충해 넣고 문화마을 혹은 자연친화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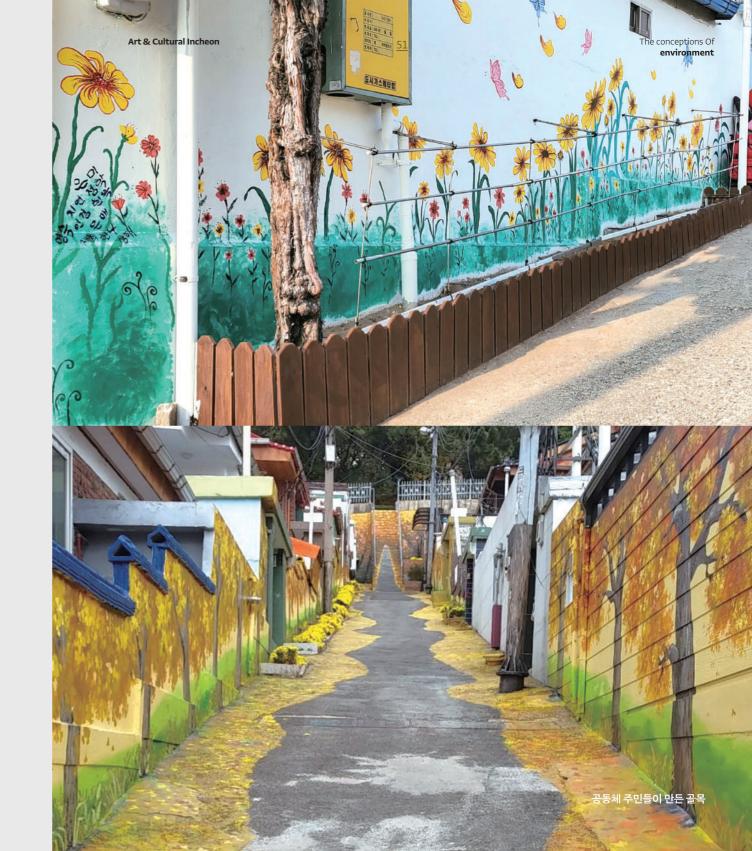
이런 주민들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눈을 키웠으며,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법을 찾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서 지역으로서의 확장된 현 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깨어 있는 주민들의 주인의식 속에서 거대한 미래의 꿈을 향해 목소리를 높 이고 스스로 앞장서서 실현 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다.





공모사업 진행 주민소통 회의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 인천예총



#### • 2022 힐링콘서트: "꿈의 인천과 함께"

- 일 시 : **2022.07.13.(수) 19:30** - 장 소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 대 상 : 인천시민

- 내 용 : 인천시민들에게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클래식 음악회가 아닌 음악 을 통해 서로 힐링하며 서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유쾌한 시

간을 선사

- 관 람 : 엔티켓 예매, 전석 10,000원

- 문의: 032-872-7873 / www.artin.or.kr

※ 본 공연의 티켓수입은 예술인 창작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 2022 대한민국예술축전 인천광역시 예선전

- 예선일시 : **2022.7.1. ~ 8.31** - 예선분야 : 국악, 사진, 영화

- 참가대상: 인천 거주 개인 및 단체, 일반인

- 내 용 : 2022 대한민국예술축전 인천광역시 작품 공모 및 심사 진행, 각 분야별 본선 진출자를 선별하여 울산에서 진행되는

본선 참가 기회 부여 - 문 의 : www.artin.or.kr

※ 예선은 각 분야에 따라 일정이 상이, 추후 홈페이지 참고바람



#### • 2022 제40회 제물포예술제

- 일 시 : **2022.11월 예정**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전시실

- 주 최 : 인천예총 / 주관 : 인천예총, 9개 회원단체

- 내 용 :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 대표 예술축제로서의 전문예술인들이 만드는 축제와 미래의 인천예술을 이끌어갈 세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민축제의 유쾌한 시간을 선사

※ 추후 홈페이지 참고바람





#### • 2022 한·중·일 전통예술 교류전

- 일시:**2022.10월 ~ 11월 예정** 

- 주 최 : 인천예총

- 주 관 : 인천예총, 인천국악협회

- 내 용 :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 중국의 얼후 연주자, 고토의 신성이라 불리는 일본연주자 섭외로 한·중·일을 대표하는 전통 악기, 전통 노래로 구성하여 각국의 전통과 문화색으로 레파토리를 기획해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

※ 추후 정보는 홈페이지 참고바람

#### • 2022 제31회 인천예총 예술상 시상식

- 일 시 : **2022.12월 예정**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주 최 : 인천예총

- 내 용 : 올 한해 인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와 공로자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예술상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행사

※ 추후 정보는 홈페이지 참고바람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 인천<del>수봉문</del>화회관

#### 수봉IN 기획공연, 전시



- 대 상 : 인천시민

- 문의: 032-868-7196

#### • 스트릿댄스 렉처 콘서트 플라이업 [ 갬블러크루 ]

-일시: 2022.07.09. (토) 15:00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내 용 : 힙합 문화의 총집합! 국내 최초의 스트릿댄스 렉처 콘서트 - 관 람 : 엔티켓 예매, 전석 10,000원(회관 회원 사전 예매 5,000원)

#### • 전통액션연희극 쌈 구경 가자! [ 발광엔터테인먼트 ]

-일시: **2022.07.23. (토) 15:00**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내 용 : 대한민국 최고의 택견꾼들이 펼치는 전통액션연희극

- 관 람 : 엔티켓 예매, 전석 10,000원(회관 회원 사전 예매 5,000원)

#### • 樂&민yo!-유쾌, 경쾌, 통쾌한 삼쾌(三快)콘서트 [ 여민 ]

-일시: **2022.08.13. (토) 15:00**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내 용 : 우리가락과 민요, 힙합과 비보이가 어우러진 삼쾌!

- 관 람 : 엔티켓 예매, 전석 10,000원(회관 회원 사전 예매 5,000원)

#### • 함께 뛰어노는 댄스컬 스쿨 아티스트

[월유엔터테인먼트(버스킹공연)]

-일시: **2022.08.27. (토) 16:00** 

- 장 소 : 인천 수봉공원 정상광장 수봉별마루

- 내 용 :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동네에서 펼쳐진다!

-관람:무료

#### • 시간의 기억 [ 윤지한 ]

-일시: 2022.07.19.~07.23

- 장 소 : 인천 수봉문화회관 1층 전시실

- 내 용 : 카메라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 공원 숲의 대상이 손짓하는 시간의 유혹

- 관 람 : 무료

#### • 세월의 흔적 [ 최복수 ]

-일시: 2022.08.23.~08.27

- 장 소 : 인천 수봉문화회관 1층 전시실

- 내 용 : 소나무와 웅이를 통하여 보여주는 나무 세월의

견담과 흔적

- 관 람 : 무료

#### 방방곡곡 문화공감

인천수봉문화회관



#### • ASMR MUSIC CONCERT - 여행어때요? [오르아트]

- 일시: **2022.09.24. (토) 15:00**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대 상 : 인천시민

- 내 용 : 여행이 우리를 떠난 요즘, 여행을 즐기는 새로

운 방법

- 관 람 : 엔티켓 예매, 전석 10,000원 (회관 회원 사전 예매 5,000원)





-일시: **2022.10.15. (토) 15:00**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대 상 : 인천시민

- 내 용 : 아카펠라의 아름다운 화음과 낭독으로 해석한

아카펠라의 입체 낭독공연

- 관 람 : 엔티켓 예매, 전석 10,000원 (회관 회원 사전 예매 5,000원)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59 The conceptions Of

인천수봉문화회관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인천미추홀문화회관



#### • 202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 뻔뻔(FunFun)한 예술놀이! 수봉공원에서 놀자 매주 토요일, 나는 체험하며 예술을 배운다! 예술융합교육

- 일 시: 06.04 ~ 10.29 매주(토) 10:00~13:00 ※ 기수별 기간 상이

- 대 상: 초등학교 2학년 ~ 중 2학생

내 용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및 감수성, 소통 능력 제고를 돕는 예술 감 상교육 프로그램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 접수기간 : 5.10 (화)부터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수봉문화회관 홈페이지(www.subong.or.kr) 참고

- 참 가 비 : 무료 (관람료 지원, 교재&간식 제공)

- 문 의 처: 032-868-7196 / 032-866-2019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천수봉문화회관

#### 인천미추홀문화회관 강좌운영 — 83기 여름학기, 84기 가을학기, 85기 겨울학기





#### • 2022 수봉별마루 Big Picture 산책

- 일 시: **09.07 ~ 10.26 매주(수) 18:00~21:00** ※ 기수별기간상이

- 대 상: 지역거주자 20세 이상 성인

- 내 용 :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 접수기간 : 07.26 (화)부터 \*각 20명 (기수별)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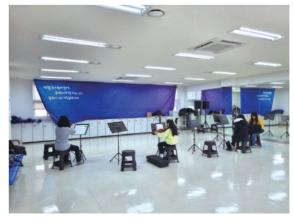
- 접수방법 : 수봉문화회관 홈페이지(www.subong.or.kr) 참고

- 참 가 비 : 무료 (무료전시 및 교재&간식 제공)

- 문 의 처: 032-868-7196 / 032-866-2019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미추홀문화회관 인천미추홀문화회관

#### 미추홀문화회관 2022 문화가 있는날 소소음악회

(8110) 제주요문학체관







#### 미추홀문화회관 댄스단&발레정기공연

#### 발레 9월 콩쿠르예정







#### 댄스단 6월11일 YWCA 개막식 댄스단 6/18 효재단 발대식











FACO+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63 The conceptions Of 만천국악협회 65 마양ironment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 • 2022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얼쑤"

- 일시: 2022년 6월 ~ 10월 일요일 16:00 (8회 공연)

- 장소: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야외공연장 및 풍류관) - 주최: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 관: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내용: 인천국악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모체로서 2022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얼쑤"는 역사와 더불어 면면히 이어온 무형문화의 보존과 국악의 박물(博物)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악기와 연주, 장르를 총망라하여 좋은 음악으로 인천의 국악을 알리며, 인천국악의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청소년들에게 국악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 미추홀! 젊은 국악의 소리 (인천국악협회 관현악)

-일 시: **2022. 9. 7.(수)**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주 최 :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 관: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내 용: 추석 대보름을 맞이하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우리 소리의 다양하고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연주회가 진행된다. 국악관현악단 & 프랑스인 판소리꾼 로르마포의 불어로 듣는 판소리 협연무대와 국악관현악단의 연주 등 다가올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구성하였다.

#### • 제22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

- 일시: **2022.09.17.(토) ~18.(일)** 

- 장소: 예선 - 인천국악회관, 수봉문화회관 본선 - 인천 서구문화회관

- 주최 :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사)한국국악협회, 사)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 연합회

- 내용: 국악 계승발전과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우수 국악인의 배출 및 전통 보급을 위하여 5개 부문의 전문성을 지닌 심사위원을 모시고 경연을 한다.







#### • 인천 대한민국 국악제 "풍류GOOD"

- 일시: 2022. 10. 14.(수)

- 장소: 은율탈춤전수관 야외공연장 (예정)

- 주 최 :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 관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내용: '풍류 GOOD'이라는 작은 부제로 마당놀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야외공연장의 장점을 살려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일반시민 모두가 함

께 즐길 수 있는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 Dance Association



#### • 2022 제30회 인천전국무용경연대회

-일시: **2022년 7월 2일(토)** 

- 장 소 : 인천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전국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중장년)의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와 정서교육함양, 무용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이루고 무용에 재능이 우수한 무용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무용 인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되었다. 22년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가자의 제한을 두어, 학생부문만진행할 예정이다.

#### • 2022 제31회 전국무용제

-일시: **2022년 9~10월중** 

- 장 소 : 전라남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국무용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0일간, 1일 2작품 씩 지역 대표 무용단이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인 천광역시 대표팀은 2022년 6월 11~12일 개최되는 인천 무용제 경연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선발되는 무 용가 및 무용단을 전국 무대에 소개한다. 2022년도 전국 무용제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2022 제10회 인천국제현대무용제

- 예선일시 : **2022년 11월중**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미정)

인천국제현대무용제는 인천의 시민 관객에게 좋은 작품을 통하여 무용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무용예술 발전 및 신진예술인 발굴, 참가작품의 연속적 공연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술인에게는 예술적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관객에게는 좋은 작품을 통한 무용의 관심을 높이고자 '인천국제현대무용제(ICOF)'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FACO+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67 The conceptions Of PD천문인협회 67 POINT POIN

#### (사)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 • 계간『학산문학』 115, 116호 발간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간《학산문학》115호, 116호가 발간되었다. 계간《학산문학》은 신임 이성률 편집주간 체제를 맞이하여 여러모로 신선함을 꾀했다. 제호와 표지 디자인은 물론 편집에도 적잖은 변화를 주었다. 내용 면에서도 '명문장'과 '작법은 없다', '두멍, 경계를 넘어' 등의 꼭지를 신설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인천을 대표하는 종합 문예지인 만큼 지역을 알리는데에도 공을 들였다. '인천시민문예대전', '인천지하철 승강장 게시용 시공모', '한국근대문학관의 전시 화보' 등이 그 예이다.

앞으로도 계간 《학산문학》은 전국의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문예지가 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인천문인협회 연간지『인천문단』 51집 발간

인천문인협회의 기관지인 『인천문단』 51집에는 시 71명, 소설 9명, 수필 30명, 동화 3명, 동시 6명 시조 6명 총 125명이 참가하여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함용정 회장은 "『인천문단』은 지난해 50호를 발간하고 향후 100호 발간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문인들은 독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는 글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또 향상심(向上心)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자기 인생에 온 힘을 쏟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문학지가 되도록 우리는 치열한 작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 2022년 인천문인협회 창덕궁 및 창경궁 문학기행 나들이

2022년 6월 18일(토) 인천문인협회 34명 회원이 서울 창덕궁 및 창경궁 문학기행 나들이 길에 나섰다. 이은화 수필가 선생님의 안내로 모처럼 만남의 자리에서 회원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 • 내 손안에 인천사랑 시민 공모전 (인천도시철도1호선 안전문에 시 부착)

#### 2022 인천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시(詩) 작품 공모

- 공모 주제와 편수 : 인천을 소재로 한 작품 및 감동을 주는 시 12행 이내 시 1편 ※ 본인이 문인일 경우 시 12행에 준하는 산문 발췌문 가능

-자 격: 인천시민, 인천문인협회 회원. 인천의 문학 동아리 회원

- 공모기한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주소와 연락처 기재 필수)

- 부 상: 당선작 모음집(소책자)와 시화전 작품 (인천대공원)

- 심사기준 :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

- 최종선정 : 80편

-보 낼 곳: 1004munin@hanmail.net

- 문 의 : (사)한국문인협회인천지회 T.032-863-1797

#### • 2022년 제33회 인천시민문예대전 <신인발굴> 문학작품 공모

인천시민문예대전은 미등단 신인 발굴 등용의 장으로 권 위와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에 새바람을 일 으켜나갈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참여 바 랍니다.

- •시, 시조 부문 (당선작 70만 원) 5편 이상 (장시 제외)
- 소설부문 (당선작 100만 원) 1편 이상 (200자원고지 80매 이내)
- 수필부문 (당선작 70만 원) 3편 이상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 아동부문 (당선작 70만 원) 동시 5편 이상(장시 제외)
   동화 2편 이상 (200자 원고지 30매 이내)
- 평론 및 희곡 시나리오 부문 (당선작 70만 원)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

- 공모기간 : **2022년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접 수: 1004munin@hanmail.net

- 문 의 : (사)한국문인협회인천지회 T.032-863-1797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 제49회 美 에코데이 실기대회 - 사업기간 : 2022. 7. 9. ~ 7. 14.

- 사업장소: 수봉문화회관 전시실

- 참석인원: 작품 100여 작 전시

전시관람객 500여 명 예상

인천광역시지회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 인천국제아트페스타 (IIAF)

- 사업기간 : 2022. 10. 12. ~ 10. 16.

- 사업장소: 인천송도컨벤시아

- 참석인원: 참여작가 700여 명예상

관람객 5,000여 명 예상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제58회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 사업기간 : 2022. 10. 12. ~ 10. 16.

- 사업장소: 인천송도컨벤시아

- 참석인원: 참여작가 700여 명예상

관람객 5,000여 명 예상

- 주최·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2022 골라보라 미술전

- 사업기간 : 2022. 8. 25 ~ 8. 31

- 사업장소: 우현문갤러리

- 참석인원: 참여작가 500여 명 예상

전시관람객 1,500여 명 예상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 제66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 시상 및 전시

시 : 2022.09.24.~09.28(5일)

소: 인천수봉문화회관

- 주최/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원: 인천광역시·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 인천의 사진예술 창달과 사진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한국 최초, 최장수 촬영대회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 발전시킴

※ 촬영대회 일시: 2022. 08월(예정) / 장소: 미정



#### • 제40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시상 및 전시

시: 2022.10.29.~11.02(5일)

소: 인천수봉문화회관

- 주최/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원: 인천광역시·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일반 및 사진동호인들에게 사진작가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견작가인 초대, 추천작가들에게 창작 의지를 고취시켜 사진 문화 창달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인천의 대표적인 전국 사진대전으로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함.

-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사진 작품 감상의 기회 제공

- 5개 부문(창작, 환경, 관광, 보도, 추상) 1인당 4점 이내 출품

#### • 제83회 인천광역시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시 : 2022.11.05.~11.09(5일)

소: 인천수봉문화회관

- 주최/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용: • 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원들의 작품전시회



인천사진작가협회

####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Theater Association

#### • 기획사진전 - 흔적을 찾아서-인천의 임해 |

-일 시: **2022.11.26.~11.30(5일)** 

- 장 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전시실

- 주최/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 원: 인천광역시·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 내 용: •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여 지역문화의 아카이브로 활용

• 임해도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사진작가의 시각으로 표현

• 인천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

• 코로나19로 위축된 인천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 기회 제공









#### 2022 인천연극제 대상 - 극단 태풍 [ 가족 ]

2022년 인천연극제에서 9개 팀이 경선을 한 결과 극단 [태풍]에서 [가족]이 대상을 얻어냈다. 가족이라는 작품으로 오늘날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혈육의 정을 대신 사회적으로 서로 부딪치며 정으로 만들어진 가족. 이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다. 혈연관계 중심이 아닌 유대 관계로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극에 녹여 우리 시대에 가족의 의미에 대해 재미있게 재조명해본다.

**줄거리** 지도산은 물난리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술로 하루하루 달래며 살았다. 그 모습을 보던 신은 지도산에게 가족들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문패를 달아준다. 그렇게 문패 안에 사람들은 "월세 내는 것을 생명처럼. 매월 25일"이란 현판을 소유한 구두쇠 지도산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장기 월세로 살아가게 된다. 지도산이 연정을 품고 있는 포장마차 주인 우봉자는 첫날밤 떠나간 남편 생각에 쉽사리 지도산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인생은 한방이라면서 도박에 빠져 사는 이기철은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붙들려 현재는 노래방 도우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이기철을 사랑하는 김선녀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연기자의 꿈을 꾸고 살지만, 매번 오디션에 떨어진다. 동자신이 잘 찾아오지 않는 무당 장길순과 공중부양에 성공하지 못하는 철학인 나 철학은 서로가 모시는 신에 대한 최고임을 주장하며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이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Korean Celebrity Artists Association



#### •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밀양

기간: 2022년 7월 8일(금) ~ 7월 30일(토), 23일간 장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해맑은상상홀, 해천 야외공연장, 밀양시내 일원

전국 연극인들이 햇빛 가득한 7월에 밀양으로 모이기 위해 전국의 각 지역에서 예선 대회를 거쳐 본선으로 가 는데요. 올해 대한민국연극제는 타이틀에서 벌써 아실 수 있듯 경남 밀양에서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밀 양!!! 연극도 보고, 밀양 관광도 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선사해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만연하지 만…. 해맑은 상상이 가능한 밀양에서 사람, 이야기, 연극의 힘으로, 만나는 모두를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반갑 게 맞이하고자 한다.

#### • 2022년 대중예술인 행정지원

-일시: 2022년 1월 1일~12월 30일

- 장소: 인천연예예술인협회 사무국

- 내용: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과 중장년층 예술인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이 행정과 정보에 미숙함에 도와주기위해 사무국에서 상 담 및 절차의 진행·대행을 도와주고 있다. 회원 단체는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 미아래 2021년에는 약 150여 명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2022년에도 네이버 밴드운영으로 예 술인활동증명 및 지원제도의 홍보와 지원을 하 고 있으며 회원수도 증가하고 대중예술인단체 도 가입을 하고있다.

#### • 2022년 제3회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 에이블

-일시: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장 소 : 에이블 스튜디오

- 내 용 : 인천연예예술인협회는 에이블문화장애인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를 중시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참가한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으로 구성된 팀이 인천장애인합창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향 초를 직접 제작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칼림바 배워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달장 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제공과 장애인 인 식개선 효과을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 2022년 제3회 에이블과 함께하는 거북이 가요제

-일시: 2022년 9월 - 장 소 : 인천광역시

- 내 용 :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요제로서 3회째 를 맞이 하였으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사업에 직접 공연스탭으로 참 여함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상승에 기여하였고 비장애인 인천시 민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발달장 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도 잠재적 수혜자가 되는 사업이 되었으며 실시간 생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음악도시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거 점도시가 되는데 초석을 다지고 홍보효과에 기여하였다.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75

Korean Movie Association

#### • 2022년 제1회 시끌시끌 거북이 음악회

-일시: **2022년 9월** -장소: 인천광역시

- 내용 : 문화적 소외계층인 발달장애인 등 관람이 어려운 대상을 특정하는 공연문화 기틀 마련하는 공연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람객의 주대상이 발달장애인이 되며 음악/마술/퍼포먼스 등 직접 공연에서 무대[직접 참여하고 사업초기부터 발달장애인, 가족(보호자), 생활보호선생님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여 어울려 만들어가는 공연을 추구한다.

#### • 2022년 제9회 아름다운 인천실현 다문화예술제

-일시 : **2022년 9월** 

-장소: 인천광역시

- 내 용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같이 모여서 잘사는 국제도시 이자 음악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음악 과 노래 및 참가자로 예술로서 인천시민에게 다문화에 대 한 인식개선 효과와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공연





#### • 2022년 제25회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

-일시 : **2022년 11월** 

- 장 소 : 월미도 야외공연장

- 내용 : 2021년 280명이 참가하여 19개 팀의 청소년이 본선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겨루어 청소년의 생활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22년에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립과 미래문화 예술양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실용음악을 통한 인천 청소년 문화주권 시대를 열었다. 수준높은 전국대회로서 음악도시 인천을 알리는 데 기여 하였으며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기획아래 전국적인 실용음악 경연대회로서 방송 섭외 요청 등 도전적, 역동적으로 세계를 향한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 양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 • 2022년 5월 7일 영화아카데미교실 개강

15회 차 영화아카데미교육이 5월7일 개강하였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시나리오, 연출, 영화 개론, 편집 등의 강의를 거쳐 수강생들의 단편 영화 6~7편을 수강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으로 10월 17일 시사회와 우수작품 시상식을 거행한다.





FACO+ 예술인천 2022 Vol.33 Art & Cultural Incheon 77 The conceptions Of 안전음악협회 Art & Cultural Incheon 77 environment

####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 • 2022 행복찾음 문화행사

- 일 시 : **2022년 5월 ~ 11월 중 16회** 

- 장 소: iH 임대아파트 등 6개 지역

- 주 최 : (사)한국예술총연합회인천광역시연합회

- 주 관 : (사)한국음악협회인천광역시지회

- 내 용 :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음악으로 힘을 얻어 힘든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예술 테라 피를 제공하고 '위드코로나'시대의 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편승하여 창의적이고 공감·감동할 수 있는 예술문화를 창조한다.









#### 2022 인천음악제

인천시의 음악인들과 인천시민을 화합의 자리로 이끌며 연합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앙상블, 대중들이 사랑하는 팝 콘서트, 연합 관악단의 공연으로 인천 최대의 음악 공연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문화 의식 수준을 높여 인천 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 축제로 만든다.

- 주최·주관: (사)한국음악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 원:인천광역시

#### • 앙상블의 밤

- 연 주 : 디아스테마 콰르텟&앙상블, 팝페라 스칼라 B.E.M MUSIC 목관5중주, 예술단체 아토,

웨스트 앙상블

-일시: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 • 팝 콘서트

- 지 휘 : 백종성

- 연 주:I-We 윈드 오케스트라

-일시: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인천월미도야외무대

#### • 오케스트라 공연

- 지 휘 : 이종관

- 연 주: 웨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시: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 장 소 : 인천 남동구 소래아트홀

#### • 관악의 밤

- 지 휘 : 백종성

- 연 주 : 인천 연합 관악단

-일시: 2022년 9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 장 소 :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야외무대

#### • 2022 청소년 Wind Festival

- 지 휘 : 백종성

- 연 주: 청소년 연합관악단

-일 시: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

- 주최/주관: (사)한국음악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 원 : 인천광역시

현재 인천 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윈 드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기량을 선보인다. 선의의 경쟁과 함께 그 동안 갈고 닦은 시간에 대한 결실을 맺는 자리로 인천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보람과 성취 감을 선물할 뜻 깊은 자리이다. 오랜 세월 침체되어 있던 인천의 청소년 관악단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 전 지역에 학교 윈드 오케스트라들에게 단독 공연과 더불어 하나로 단결된 연합 관악단 공연 퍼레이드를 열어하나로 단결된 연합관악 공연을 통해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Keyword+
 78
 예술인천 2022 Vol.33

#### keyword+ environment; 환경

환경은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와 이를 받아드리고 재해석 하는 객체에 따라 환경의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p.8** 

# ## CEP

작품 창작 → 전시 → 작품 관람

**p.16** 

→ 그 모습을 다시 작품화하는 과정을 작품 속에 녹여냄으로서 문화향유에 대한 순환되는 모습

-- 구명화 작가의 작품을 보고



## S p.24

일상 속에 마주치던 풀꽃이 나에게 작은 것들의 소중함에 눈뜨게 했다.

- 임봉주 작가의 말 중에서



# 지역 향토문화 예술<sub>p.36</sub>

Art & Cultural Incheon

지역 문화콘텐츠로서의 향토문화예술은, 그 무엇보다도 "화합과 소통 그리고 협력"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 제공이나 소비적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함께 이루어 나아간다는 활동적 차원에서의 시도가 필요하다. — 문화+만남 인터뷰 내

2101 life logging

> 개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수시로 기록하고 온라인 상에 올려 공유하는 일 즉,제공자(예술가)가 제공하는 스토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자(관객) 스스로가 문화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된 스토리를 능동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한 것

> > --- 문화+생각 글에서

The conceptions Of

environment

주민들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눈을 키웠으며,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법을 찾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서 지역으로서의 확장된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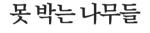
— 조영숙 작가의 글에서



**D.44** 







산은 편애가 없습니다

굳어버린 관절은

—성영희

세상에 나무만 한 수도자가 있을까요 가는 것 두꺼운 것 어린 것 늙은 것 수종을 가리지 않고 밤낮 뿌리를 내립니다 가옥이 헐렁해지면 바람에 날아 갈까봐 스스로 부실한 곳을 찾아 못 박는 거지요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 없는 가부좌

어린 새들의 요긴한 둥지가 되기도 합니다 산짐승들은 살림살이가 비루해도 불평으로 뒤척이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장마에 쓸려나간 산자락에

인부들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못이라도 박듯 자리를 고르고 발로 꾹꾹 밟아요

옆구리가 결리겠지만 내색 없이 안아주는 품

안개를 끌어다 덮고

풀벌레 소리를 끌어다 덮고

그 위에 검은 밤을 끌어다 덮으니 이불이 됩니다

오늘밤 새로 이사 온 나무들은

아주 곤한 잠을 자겠지요

늙은 참나무 가지에

안간힘으로 버티는 빈집이 있어요

어린 가출을 기다리며

여름의 끝을 꽉 움켜쥐고 있는 곤충껍질들

겨울이면 제 몸의 물기를 모두 빼서

어린 생명들을 덮어주는 것도

나무들의 득도일 것입니다

긴 겨울 동안 흰 눈을 덮고

꽝꽝 못 박힌 나무들 좀 보아요

늦은 밤, 눈보라 뚫고 귀가한 아버지 같아요



충남 태안출생, 인천거주 인천문화재단 창작기금 수혜(2019, 2022)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2017) 대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2017) 농어촌 문학상 수상(2015) 제12회 동서문학상 수상(2014) 시흥문학상 수상(2010) 서울지하철 및 인천지하철 스크린 도어 공모시 다수 선정

시집: 「섬, 생을 물질하다」, 「귀로 산다」

現 인천문인협회,대일문협,동서문학 서구예술인회,청라문학 회원,시마을 동인